 금융위원회	보도 반 박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시	배포	2022.2.8.(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담 당 자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832)	
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		권 나 림 사무관 (02-2100-2954)	

**제 목 : 만기연장 · 상환유예 조치의 3월말 종료여부는  
결정된 바 없습니다.  
[뉴스1 2.8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

## 1. 기사내용

- ☐ 뉴스1은 2.8일 「금융위, ‘코로나 대출’ 은행 면담 무기한 연장... 3월말 종료 가닥?’ 제목의 기사에서
- “금융당국이 지원조치의 부분 연장 없이 전면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해석”이 나온다면, “금융당국 내부에선 만기연장의 재연장을 두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진”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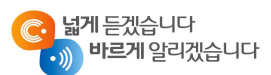
- ☐ 금융당국이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전면 종료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- ☐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및 연착륙 방안의 이행과 관련한 상시적인 협의 이외에 조치 종료 등과 관련한 은행권 면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, 면담을 돌연 연기한 사실이 없습니다.

- ☐ 아울러 현재까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종료/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-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
  - 지난 1.19일 「소상공인 리스크 점검회의(금융위원장 주재)」에서 밝힌 바와 같이,
    -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진행,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의 종료/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- ☐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경영·재무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입니다.
-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,
  - 추후 은행권, 산업계, 학계,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